

제1부
새로운 경향
역사와 교도권과 신학

제 1 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전례와 대중 신심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례와 대중 신심

22. 전례와 대중 신심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대중이나 전례와 대중 신심이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오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흔히 오늘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도교

23. 사도 시대와 사도 시대 후기의 특징은 오늘날 전례와 대중 신심으로 분류되는 예배의 실제들이 깊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께서만이 (골로 2, 17 참조)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요한 6, 63 참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요한 13, 34 참조),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명령하신 예식 행위들과(1고린 11, 24-26 참조)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실제이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것 — 날과 달, 계절과 해, 초생달 축제, 먹고 마시는 문제 등(갈라 4, 10; 골로 2, 16-19 참조) — 은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제 1세대에서 이미 개인 신심의 표지들이 발견된다. 유대 전통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바오로 성인을 본받을 것과(루가 18, 1; 로마 12, 12; 1테살 5, 17 참조), 모든 일을 감사의 행위로 시작하고 마치

도록(1고린 10, 31; 1테살 2, 13; 골로 3, 17 참조) 권고하였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였고, 같은 정신으로 그날 자신이 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미와 간청과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기록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의 표지이기도 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들어 있다. 신자들은 전례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기도들을 되풀이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 47);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루가 23, 42);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 28);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사도 7, 59) 등.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이러한 신심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발전시켰다.

2세기까지 유다교나 그리스-로마, 기타 다른 문화들에서 비롯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전례 안에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도 전승」(*Traditio Apostolica*)에는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²⁵

지역 교회에서 큰 중요성을 지녔던 순교자 공경은 죽은 이들을 기리는 것과 관련된 대중 관습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²⁶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경에 대한 최초의 표현들 가운데서도 어떤

25. 다음과 같은 예들이 대중 신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enedictio Fructuum*, n.32, A. Botte(ed.), *La Tradition Apostolique de Saint Hippolyte. Essai de Reconstruction*, Meunster Westfalen: Aschendorff, 1989, 18-78면.

26. 순교자 공경과 관련된 일부 관습은 거의 대부분 다음과 같은 대중 신심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 놓아두는 등불, 거룩한 장소들에 축제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화환,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 놓는 향료, 여러 가지 물건들(특히 순교자들의 무덤에 덮였던 비단보, 두건, 명정 등으로 불리는 천들은 귀중하고 참된 유물로 여겨졌다.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음식을 나누는 음식 잔치 관습 등이 그러하다).

것들은²⁷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Sub tuum praesidium*)나 로마의 성 프리실라 지하 묘지의 성모상과 같이 대중 신심을 반영한다.

교회는 거룩한 신비의 품위 있는 거행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전례 조건에 대하여 언제나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도(1고린 11, 17-32 참조),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신심에서 이끌어 낸 표현들을 주저 없이 전례 예식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의 전례와 대중 신심은 개념적으로나 사목적으로 서로 대립이 없었다. 전례와 대중 신심은 하나의 전체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단일한 신비를 거행하며, 주님 제자들의 초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데에 조화롭게 협력하였다.

24. 4세기에 교회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자연스러운 융합이라는 면보다는 적응과 토착화의 면에서 의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지역 교회들은, 분명한 사목 원칙과 복음화의 원칙을 따라, 이교도 세계에서 비롯된 엄숙하면서도 경쾌한 일부 정화된 예배 요소들을 주저 없이 전례 안에 받아들였다. 이들 요소는 그것들에 이끌리는 신자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겨졌다. 현재 예배에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들은 복음에도, 또 참된 그리스도교 예배의 순수성에도 대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졌다. 오히려 참 하느님이시며 참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예배 드림으로써만, 비록

27. *Protoevangelium Icaobi*라고도 알려진 3세기의 유명한 ‘성모 탄생(De Nativitate Mariae)’과 2세기의 ‘성모 영면(De Dormitione Mariae)’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심을 증언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글들은 성모 신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여러 대중 신심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종교 의식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이전에는 그릇된 신들과 그릇된 구세주들에게 바쳤던 여러 가지 예배 표현들이 참된 예배 표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5. 4세기와 5세기에, 시간과 장소의 거룩함에 대한 의식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많은 지역 교회가 주님의 날(dies Domini)과 부활 축일, 단식에(마르 2, 18-22 참조) 대한 신약성서의 자료를 채수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들(주님의 공현, 성탄, 승천)을 거행하는 특별한 날들을 지정하고, 순교자들의 탄생일(dies natalis)을 경축하며, 목자들의 사망일(dies depositionis)에는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성사들을 거행하며, 삶에서 엄숙한 약속을 하기 시작하였다. 공동체가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고 주님을 찬미하도록 부름 받은 장소의 대부분이 이교도의 예배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다가 오로지 하느님 경배를 위해서만 쓰이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 장소는 흔히 건축 구조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반영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다.

26. 이 시기 동안 다양한 전례 계열이 형성되면서 점차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제는 주요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신학 전통, 영적 감수성, 사회적 배경에서 발전된 나뉠의 문화 형태와 대중 신심의 형태를 가지고 주님께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 이 과정에서 점차 나뉠의 고유한 거행 양식과 일련의 전례문과 예식을 갖춘 전례 계열이 발전하였다. 전례 예법들이 형성된 이 황금기에도, 이 예법들 안에 대중 신심의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주교들과 지역 주교대의원회의는 예배의 구성을 위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식의 순서뿐 아니라, 전례문의 교리적 정확성과 형식적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기울이

기 시작하였다.²⁸⁾ 이러한 개입은 고정된 형식을 갖춘 전례의 질서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원 전례의 독창성을 소멸시켰으나 완전히 임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발전을 개인 신심과 대중 신심을 위한 기도문이 점점 확산되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으로 여긴다.

27. 위대한 목자이며 전례학자인 교황 그레고리오 7세 성인(590-604년)의 재위 기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전례와 대중 신심의 유익한 관계를 위한 훌륭한 준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렬과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체계화함으로써, 대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전례를 크게 쇄신하고, 로마의 신자들에게 대중의 감수성에 호응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신비 거행에 확고하게 바탕을 둔 전례 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셨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새로운 민족의 회개는 그 고유한 문화 전통을 존중해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현명한 지침들을 발표하셨다. 실제로 전례 자체에 새롭고 올바른 예배 표현들과, 좀 더 소박한 대중의 감수성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적으로 뛰어난 숭고한 표현들이 첨가될 수 있었다. 유일한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다른 요소들(예수 성탄 대축일, 주

28. “누구든지 기도할 때에 성자 대신에 성부를, 또는 성부 대신에 성자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단에서는 언제나 성부께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스스로 다른 곳에서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먼저 더 많이 배운 형제들에게 가져가 보이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 제23조 1항, I.D. Mansi,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 III, Florentiae, 1759, col. 884).; “공의회에서 검증되고 신앙을 거스르는 내용이 전혀 없는 위탁 기도, 또는 안수 기도를 모든 이가 바치는 데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더 현명한 이들이 모아 놓은 기도문을 바쳐야 한다”(아프리카 교회법전, 제103조,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 III, col. 807).

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도 거행되었고 성인들의 기념일도 확대되었지만, 대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그리스도교 예배를 예수 부활 대축일 거행에 확고하게 고정시킴으로써 일치의식을 확립하였다.

중 세

28. 중세의 동방 그리스도교 교회, 특히 비잔틴 교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에는 전례의 분수령이 된 성화상 파괴 운동에 대항한 싸움이 있었던 두 시기(725 - 787년과 815 - 843년)를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은 성찬의 전례와 예배용 건물의 성화상에 관한 고전적인 언급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전례 부분에서, 교회의 성화상 전통과 완성된 형태의 거룩한 예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전례는 상징적인 우주관과 거룩한 위계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사회의 모든 질서의 종합과 수도생활의 이상과 체계, 대중의 열망, 신비주의자의 통찰력, 금욕주의자의 계율을 가지고 있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 교령 「성화상에 관한 정의」(*De Sacris Imaginibus*, 787년)와²⁹⁾ ‘정교(正敎)의 승리’(843년)를 통한 성화상 파괴 논쟁의 해결로, 성화상은 교리적 합법성을 얻어 발전하여 분명한 형태를 갖추었다. 신성하며 상징적인 힘으로 충만한 성화상은 그 자체가 전례 거행의 일부가 되었으며, 거행된 신비를 반영하였고, 신자들에게 공경하도록 제시된 그 신비의 영원한 현존의 일부를 담게 되었다.

29. 서방에서는 중세기 중반에 그리스도교가 켈트족과 서

29. DS 600-603 참조.

고트족, 앵글로 색슨족, 프랑크 게르만족과 같은 민족들과 이미 5세기부터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치 사회 제도가 형성되었다.

7세기와 15세기 사이에는 전례와 대중 신심의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점점 더 뚜렷해져 마침내 이중으로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라틴어로 거행되는 전례와 나란히, 모국어로 거행되는 공동의 대중 신심이 등장하였다.

30. 이러한 이중의 거행이 발전하게 된 이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 평신도는 전례의 참관인에 불과하므로 전례는 성직자들의 권한에 속한다는 생각.

-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의 역할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서로 다른 양식과 형태의 기도문이 생겨났다.

- 전례와 성화상학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비가 지닌 다양한 측면을 명확하고 각별하게 고려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삶과 활동에 대한 신심을 나타내었지만, 파스카 신비의 중심성을 명백히 깨닫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였으며, 대중 신심의 성격을 지닌 수많은 특별한 시기들과 거행 형태들을 장려하였다.

- 평신도뿐 아니라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성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전례의 구조와 상징적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 다른 한편,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와 삽화들이 실려 있는 외경 문학의 보급은 신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스레 그들의 관심을 끄는 성화상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어떠한 형태의 강론식 설교도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밀교식 설교도 사라졌으며, 교리교육은 빈약하였기 때문에

전례 거행에 대한 평신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들은 다른 예배 시기와 형태에 관심을 돌렸다.

- 전례문과 예식의 의미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신자들이 전례의 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점차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된 전례를 표현이 풍부한 대중적인 형식과 구조들로 무의식적으로 고쳐 나가게 되었다.

31. 중세기에는 여러 가지 영성 운동과 서로 다른 교회 단체와 법률 단체들이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의 생활과 활동은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복음 생활과 사도 생활을 하는 새로운 수도회들은 설교에 노력을 기울였고 봉쇄 수도회에서 볼 수 있는 전례에 비해 더욱 단순한 전례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들 전례 형식은 흔히 표현 형식이 사람들에게 친근하였다. 다른 한편, 새로운 수도회들 또한 그들의 영성을 잘 요약한 신심 행위들을 발전시키고 장려하였으며, 일반 신자들에게도 보급시켰다.

종교적인 목적이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신심회가 등장하고 직업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평신도 단체들이 나타나면서 특정한 대중 전례 활동을 일으켰다. 이들 단체와 협회는 흔히 그들의 종교적 필요에 따라 경당을 세웠고 수호 성인들을 선택하였으며 나뉘는 축일을 지냈다. 또한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성무일도(officia parva)와 다른 기도문을 편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흔히 전례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중 신심에서 나온 요소들도 포함하였다.

중세기에 생긴 다양한 영성 학파들은 교회 생활에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이들 영성 학파는 실존적인 태도를 고취하였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해석들은 거행할 예식을 선택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수난 사회) 여러 가지 신심 행위의 바탕이 되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교 사회(societas Christiana)로 형성된 시민 사회는 교회의 관습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전례 생활의 주기를 따랐다. 예를 들어 저녁에 종을 울려서 농부들을 들판에서 불러모아 자연스럽게 삼중기도(Angelus)를 바치게 하였다.

32. 중세기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 신심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거나 발전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온다.

-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 등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례 주년 동안에 거행된 신비들을 묘사하는 성극이 만들어졌다.

- 모국어로 쓴 시집이 등장하여 대중 신심에 널리 사용됨으로써 신자들의 참여가 촉진되었다.

- 여러 가지 전례 표현과 병행하거나 그것을 대신하기까지 하는 여러 가지 신심 형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성체를 자주 할 수 없는 경우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체 조배가 나타났고, 중세 후반에는 목주기도가 시편 기도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금요일 신심 행위가 그날의 고유한 전례를 대신하게 되었다.

- 성지 순례,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무덤 순례, 유해 공경, 호칭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 등 성모님과 성인들에 대한 대중 신심 형태들이 늘어났다.

●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감수성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고 그리스도교 이전의 대중 신앙과 신앙 행위를 반영하는 축복 예식들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 대중 신심 행위에 바탕을 둔 중요한 ‘거룩한 시기들’이 선정되었다. 교회나 세속의 축제일, 3일 기도, 8일 기도, 9일 기도, 특별 대중 신심의 달 등이 시기들은 흔히 전례 주년의 주기에 주변적인 것이었다.

33. 중세의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변함없이 복잡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두 가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곧, 전례가 다양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을 고무하고 장려하였다는 것과,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전례에 받아들여져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축성, 서약, 헌당, 축일 제정 등의 예식과 다양한 축복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례와 대중 신심은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중세 말경, 전례와 대중 신심은 위기를 겪었다. 예배의 단일성이 깨어지면서 전례의 이차적인 요소들이 지나치게 중요시되어 전례의 중심 요소들을 밀어내기도 하였다. 대중 신심에 대한 충분한 교리교육이 부족하여 편향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올바른 표현들을 위협하였다.

근대

34. 근대에 들어서면서 전례와 대중 신심의 균형 잡힌 관계가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15세기 후반의 새로운 신심(devotio moderna)이 여러 위대한 영성가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성직자와 교양 있는 평신도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 새로운 신심은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 곧 그분의 유년기의 신비와 감추어진 생활, 그분의 수난과 죽음을 바탕으로 한 명상적이고 정서

적인 신심 행위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관상에 우위성을 부여하고 주관성을 증시하며 인간적 노력을 찬양하고 금욕을 실천함으로써 영성 생활에 대진하는 신자들의 눈에 전례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 생활의 제일가는 원천으로 보이지 않았다.

35. 『준주성법』(*De Imitatione Christi*)은 근대적 신심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완덕을 추구하는 대다수 주님의 제자들에게 『준주성법』은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 『준주성법』은 신자들을 일정한 양식의 개인 신심으로 이끌면서 세속에 대해서 초연할 것과 마음속으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기도의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차원과 전례의 영성에 기울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진실로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예배 표현들뿐 아니라 근대적 신심을 발전시킨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탁월한 신심 행위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도 전례 거행을 언제나 완전하게 이해하였던 것은 아니다.

36.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극동 지역의 발견은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문화와 예배의 중심인 로마 예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을 복음화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물론 말씀의 선포하고 성사들을 거행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마태 28:19 참조), 선교사들이 보급한 신심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신심 행위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하는 수단이 되었다. 로마 예법을 보존하려고 만든 규범들 때문에, 전례와 토착 문화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거의 없었다. 파라과이의 *Reduccioness*는 이에 대한 드문 예이

다. 그러나 이들 문화와 대중 신심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졌다.

37. 16세기 초 교회의 쇄신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사람들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은 두 명의 카말둘리회 수사, 파올로 주스티니아니와 피에트로 켈리니이다. 이들은 전례의 보화를 하느님의 모든 백성에게 보여 주고자 전례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한 유명한 *Libellus ad Leonem X*³⁰⁾의 저자들이다. 이 두 사람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것과,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할 때나 전례서를 개정할 때 모국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릇된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비논리적인 요소들을 없앨 것과, 신자들이 전례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교리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38. 청소년 전례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던³¹⁾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 폐막(1517년 3월 6일) 직후,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는 위기가 닥쳤다. 개신교도들은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교회의 예배, 대중 신심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개신교의 확산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맞닥뜨린 사태에 대처하고자 소집된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는 전부 3차에 걸쳐 교리와 예배의 관점에서 전례와 대중 신심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³²⁾ 역사적 상황과 공의회에서 다룬 문제들의 교리적 성

격 때문에, 공의회에 제시된 전례와 성사 문제들은 주로 교리적 관점에서 답이 내려졌다. 잘못을 비난하고 악습을 단죄하였으며, 교회의 신앙과 전례 전통을 옹호하였다. 「개혁에 관한 교령」(*De Reformatione Generali*)³³⁾은 사목 계획을 제안하고, 그 시행을 신자들의 전례 교육 문제들에 관심을 보였던 사도좌와 주교들에게 위임하였다.

39.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교회 관구에서 주교대의원회의가 열렸다. 이들 회의에서는 신자들을 하느님의 신비 거행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하는 관심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교황들은 원대한 전례 쇄신 계획에 착수하였다. 1568년에서 1614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로마 전례력과 로마 예법의 전례서들이 개정되었다.³⁴⁾ 로마 교회의 전례 거행을 발전시키고 올바르게 체계들

히 기록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Decretum de ss. Eucharistia*, DS 1635-1650),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고해성사 교령」(*Decretum de Sacramento Paenitentiae*, DS 1667-1693), 「병자성사 교리」(*De Doctrina de Sacramento Extremae Unctionis*, DS 1694-1700), 「양형 영성체와 어린이 영성체에 관한 교리」(*Doctrina de Communionem sub Utraque Specie et Parvulorum*, DS 1725-1730), 성찬의 회생 제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 그리고 성찬례 예식의 거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지극히 거룩한 미사의 회생 제사에 관한 교리」(*Doctrina de ss. Missae Sacrificio*, DS 1738-1750), 「성작 수여 청원에 관한 교령」(*Decretum super Petitione Concessionis Calicis*, DS 1760), 「성품 성사에 관한 교리」(*Doctrina de Sacramento Ordinis*, DS 1763-1770), 「혼인성사 교리」(*Doctrina de Sacramento Matrimonii*, DS 1797-1800), 「연옥에 관한 교령」(*Decretum de Purgatorio*, DS 1820),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Decretum de Invocatione, Veneratione, et Reliquiis Sanctorum, et Sacris Imaginibus*, DS 1821-1825) 등은 그 예식 거행과 관련하여 대중 신심 분야에 널리 적용되었다.

33. *Concilium Oecumenicum Decreta*, cit., 784-796면.

34. 비오 5세는 칙서 *Quod a Nobis*를 통해 1568년 7월 9일에 *Brevarium*

30. 『카말둘리회 연대기』(*Annales Camaldulenses*)의 본문, IX, Venice, 1773년, coll. 612-719.

31.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 “*Bulla Reformationis Curiae*”, *Concilium Oecumenicum Decreta*, (ed.) the Istituto per le Scienze Religiose di Bologna, Bologna: Edizioni Dehoniane, 1991, 625면 참조.

32. 「성사 교령」(*Decretum de Sacramentis*, DS 1600-1630)과 「지극

참고자 1588년 예부성령을 설립하였다.³⁵⁾ *Catechismus ad Parochos*를 통하여 사목 교육과 전례 교육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40. 트리엔트 공의회 개혁은 전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그 당시 이용할 수 있는 학문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여러 교회 예법이 “교부들의 옛 규범”³⁶⁾으로 되돌아갔다. 전례와 관계가 없거나 대중의 감수성에 지나치게 호소하는 요소들과 첨가물들은 제거하였다. 전례서의 교리 내용을 검토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로마 전례는 뛰어난 예식의 통일성과 품위,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은 간접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전례는 그 본질보다는 그것을 규제하는 법규에 따라 어떤 고정된 형태를 지니게 되는 듯하였다. 전례의 능동적인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전적으로 교제화되어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원론을 강화하는 듯하였다.

41. 가톨릭의 개혁은 교회의 교리적, 도덕적, 제도적 쇄신을 촉진하고 개신교의 확산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

*Romanum ex Decreto SS. Concilii Restitutum*을, 1570년 7월 14일자 칙서 *Quo Primum Tempore*를 통해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Concilii Tridentini Restitutum*을 발표하였다. 바오로 5세는 교황 교서 *Apostolicae Sedis*를 통해 1614년 6월 16일에 *Rituale Romanum*을 반포하고 전례서의 개정을 모색하였다.

35. 예부성령은 식스토 5세가 1588년 1월 22일에 교황령 *Immensa Aeterni Dei*를 통해 설립하였다.

36.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를 반포하는 칙서에서 사도좌가 고용한 전문가들이 “최근에 미사 전례서에서 거룩한 교부들의 규범과 예식을 복구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한 바로크 문화 현상을 뒷받침하였다. 이것은 또한 가톨릭 신심의 문학적, 예술적, 음악적 표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몇 가지 새로운 측면을 띠게 되었다. 곧 전례는 상당한 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적인 시기로 들어선 반면, 대중 신심은 놀라운 발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지나치거나 기이한 요소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두고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가톨릭의 쇄신은 가톨릭 신앙을 옹호하고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신심 행위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촉진하였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우리 주님의 수난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신비에 전념하는 신심회가 생겨났다. 이들 단체는 보통 참회와 평신도 교육과 자선 활동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풍부한 감성의 많은 아름다운 표상들이 이러한 대중 신심의 표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신자들의 믿음과 신앙 체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즈음 ‘대중 선교회’가 나타나 신심 행위의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례와 대중 신심은 이러한 신심 행위 안에 때로는 다소 불균형을 이루면서도 공존하고 있다. 교구 선교회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자주 받고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장하기 시작한다. 이들 선교회는 신심 행위들, 회개를 유도하고 신자들의 예배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신심 행위들은 흔히 수집되어 기도서에 수록되었다. 교회의 합당한 승인을 받아 보완된 이들 기도서는 그날, 그달, 그해의 다양한 시기뿐 아니라, 삶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에 참으로 적절한 도움이 되었다.

가톨릭 쇄신 시기의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를 단순히 안정과 발전이라는 대조적인 말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예외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심 행위들이 때로는 전례 행위 안에 자리 잡았으며, 전례 행위에 참가되기도 하였다. 사목 활동에서 때로는 신심 행위들이 전례보다 더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성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감소시켰고, 모든 그리스도교 예배의 토대이고 정점이며 주일에 특별하게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중심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였다.

42. 계몽 시대에는 전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박식한 사람들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대중 신심에 더 가까운 ‘일반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식한 사람들’과 ‘무지한 사람들’은 동일한 신앙 행위를 공유하였다. ‘박식한 사람들’은 지식과 깨인 지성에 바탕을 둔 신앙 행위를 장려하였고, 대중 신심을 미신적이고 광신적이라고 여기며 기피하였다.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었던 귀족주의 의식은 전례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판 의식과 연구에 대한 관심을 동반한 백과사전적 지식은 여러 가지 전례 자료를 출판하게 만들었다. 흔히 안세니즘의 영향을 받은 일부 운동 단체들이 수덕 생활에 관심을 가지면서 순수한 고대 전례로 되돌아가자는 호소에 불응하였다. 전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물론 문화 사조에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17세기 프랑스의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사목적 관심으로 불이 지펴졌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목적 관심 가운데서 대중 신심에 주의를 집중하였다. 전례와 대중 신심을 어느 정도 통합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사도적 활동의 형태가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어른 교리교육을 하는 주일이나, 대림 시기와 같은 중요한 전례 시기에 설교가 장려되었다. 신자들의 마음과 품성의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

한 설교는 고해성사를 자주 받고, 주일 미사에 빠짐 없이 참여하며, 병자성사와 노자성체를 중요시하도록 권장하였다.

개신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저지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던 대중 신심은 이제 합리주의의 침투와 안센주의가 교회 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가 되었다. 대중 신심은 이러한 임무와 본당 선교의 광범한 발전에서 더욱 힘을 얻고 풍부해졌다.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교 신비의 일부 측면들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예수 성심이나, ‘매달 첫 금요일’과 같은 새로운 ‘날들’이 신자들의 신심에서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18세기에는 뛰어난 사목 활동과 학식을 겸비한 루디비코 안토니오 무라토리의 활동을 언급하여야 한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저술 *Della Regolata Devozione dei Cristiani*에서 전례와 성서를 바탕으로 하며 미신이나 주술과 전혀 결부되지 않은 신앙의 표현을 주장하였다. 베네딕토 14세의 활동(Prospero Lambertini)과, 특히 그가 모국어 성서의 사용을 허가한 것 또한 뜻 깊은 일이었다.

43. 가톨릭의 개혁은 로마 예법의 구조와 통일성을 강화하였다. 18세기에 선교 활동이 눈에 띄게 확대되면서, 가톨릭의 개혁은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민족들에게 로마 예법의 고유한 전례와 유기적인 구조를 보급시켰다.

18세기의 선교 지역에서,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16세기와 17세기에 이미 나타났던 관계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났다.

● 전례는 로마 예법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토착민의 문화와 이질적이었다. 토착화의 문제는 실제로 전혀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이 신앙에 미칠 부정

적인 영향을 다소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중국 예법 문제에 관한 마테오 리치의 노력과, 인도 예법 문제에 관한 로베르트 데 노빌리의 노력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복음화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곳의 대중 신심은 한편으로는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자율적이고 성숙해졌다. 곧 선교사들이 장려하는 신심 행위를 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른 형태의 신심 행위들을 창출하였다.

현 대

44. 그리스도교 신앙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교 예배에 명백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프랑스 혁명에 이어, 19세기에는 중요한 전례의 부흥 운동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회를 위계 사회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며 예배 공동체로 보는 교회론이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교회론의 부흥 외에도, 성서와 교부들의 저서 연구가 활발하였고, 안토니오 로스미니(†1855년)와 존 헨리 뉴만(†1890년)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일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전례 예식 부흥의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돔 프로스페 게랑제(†1875년)는 프랑스에 수도 생활을 부활시켰으며 솔렘 수도원을 창립하였다. 게랑제의 전례에 대한 개념은 교회와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는 전례에 관한 저서에서 로마 예법이 단일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므로, 자생적인 형태의 전례 표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장려하였던 전례의 쇄신은 학문적 운동이 아니었다는 독특한 장점이 있다. 오히려 그는 전례를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예배의 표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45. 전례의 부흥이 19세기에 있었던 유일한 활동은 아니었다. 전례의 부흥과는 별도로 대중 신심도 크게 성장하였다. 전례 성가의 부흥과 발맞추어 많은 대중 찬미가가 발전하였으며, 2개 국어로 된 신자용 미사 전례서와 같은 전례서들이 널리 사용되었고, 신심 서적들이 보급되었다.

낭만주의 문화는 인간의 종교적 감각을 재발견하였으며 대중 신심 요소들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세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현상이 목격되었다. 민간에서 먼저 비롯된 것으로 흔히 기적이나 발현과 같은 경이로운 사건들과 관련된 지역 특유의 예식 표현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점차 교회 권위의 허가와 보호뿐 아니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전례에 받아들여졌다. 대중 신심과 관련된 여러 성모 성지와 순례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위한 장소들이 모두 이러한 현상을 상징한다.

19세기의 대중 신심과 전례의 관계는 전례의 부흥과 대중 신심의 지속적인 팽창을 배경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바로 그 관계가 전례 행위에 신심 행위를 첨가하도록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톨릭 개혁 시기에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46. 20세기 초에 교황 비오 10세 성인(1903-1914년)께서는 전례를 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져감으로써 전례를 ‘대중화’하자고 제안하셨다. 교황께서는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신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교회의 엄숙한 공동 기도”에서 이끌어 낸 “참된 그리스도교 정

신³⁷⁾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 비오 10세 성인께서는 전례가 다른 모든 형태의 신심을 객관적으로 능가한다는 것을 직권으로 인정하였고,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에 빚어진 모든 혼동을 없애셨으며, 이 둘의 차이점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밝히셨고, 둘 사이에 유지해야 할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전례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학식과 신심, 열의가 뛰어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바지로 20세기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안에서 교황들은 성령의 고무를 알아 보았다.³⁸⁾ 전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상 사목적인 것이었다.³⁹⁾ 다시 말해 신자들에게 거룩한 신비를 잘 알고 소중히 여기도록 장려하고, 이 같은 신비가 사제다운 백성의 것이라는(1베드 2,5 참조) 생각을 되새겨 주는 것이었다.

전례 운동의 맥락에서 보면, 일부 전례 운동가들이 왜 대중 신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전례로 변질시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례 운동가들은 신심 행위를 전례에 참가하는 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폐해들뿐 아니라, 대중 예배 행위가 전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까지 목격하였다.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은 초세기의 교회 전례를 그들의 이상

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중세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생긴 모든 형태의 대중 신심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는 흔히 교회가 승인하고 권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대중 신심이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뒷받침하였고 놀라운 영적 열매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대중 신심이 신앙을 수호하고 보존하며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1947년 11월 21일자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⁴⁰⁾를 통하여 전례 운동에 앞장서셨으며, 근세의 가톨릭 신심과 어느 정도 동의어가 된 신심 행위를 옹호하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은 거룩한 전례의 확실한 우위성을 선언하고, 대중 신심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전례에 종속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적절히 정의하였다.⁴¹⁾

전례와 대중 신심: 오늘날의 문제들

47. 지금까지의 역사적 개요를 통해 볼 때,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말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둘 사이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역사에서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오늘날 자주 절박하게 제기되는 사목 문제들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7. 비오 10세, 자의 교서 *Tra le Sollecitudini*, 1903, 11, 22., *Pii X Pontificis Maximi Acta*, I, Graz: Akademische Druck-u. Verlagsanstalt, 1971, 77면.

38. 비오 12세, 제1차 세계 사목 전례 대회 참석자들에게 한 훈화, 아시시-로마, 1956 9.22., AAS 48(1956), 712면; 전례 헌장, 43항 참조.

39. 전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랑베르 보뒤앵(†1960년), 오도 카셀(†1948년), 피우스 파르슈(†1954년), 베르나르 보트(†1960년), 로마노 구아르디니(†1968년), 요제프 A. 용만(†1975년), 치프리아노 바가지니(†1999년), 에메-조르주 마르티모르(†2000년) 등이 있다.

40. AAS 39(1947), 521-600면.

41. 전례 헌장, 7, 10, 13항 참조.

역사적인 고찰: 불균형의 원인들

48. 역사를 통해 볼 때, 전례와 대중 신심의 올바른 관계는 신자들이 전례의 본질적인 일부 가치들을 희석시킴으로써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인들이다.

- 전례가 실현하는 파스카 신비와 그것이 구원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약화. ‘진리의 위계’를 모르는 신자들의 신심이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또는 천사들과 성인들의 삶 안에 내재한 다른 구원의 신비를 지향할 때 필연적으로 이러한 의식과 인식의 약화가 따른다.

-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1베드 2,5; 로마 12,1) 드리고, 각자의 신분에 따라 교회의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는 보편 사제직에 대한 의식의 약화. 흔히 이와 함께 성직자들이 전례를 독점하며 사제에게 맡겨지지 않은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신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신심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 전례의 고유한 언어와 전례의 표지, 상징, 상징적 몸짓 등에 대한 지식의 부족. 그에 따라 신자들은 전례 거행의 의미를 많은 부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례 행위에 대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문화 양식에 더욱 친숙한 언어를 쓰거나 일상생활에 더욱 분명하게 부합하는 신심 표현들을 사용하는 신심 행위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49. 이들 요소들은 제각기, 어떤 경우에는 다 같이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 자주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전례에도 해를 입히고 대중 신심도 메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심하고 끊임

임없는 교리교육과 사목 활동을 통하여 그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거꾸로, 전례의 쇄신과 신자들의 강화된 전례 의식은 종종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 안에서 대중 신심의 위치를 재규정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심의 가장 심오한 지향을 따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겨야 한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50. 우리 시대의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가장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 헌장’에 담겨 있는 지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 지침들은 이 두 신심의 표현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도록 힘쓰며, 그러한 관계 안에서 대중 신심은 객관적으로 전례에 종속되고 전례를 지향한다.⁴²⁾

그러므로 대중 신심과 전례의 관계는 서로 모순된다거나 동등하다거나 대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전례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깨닫고, 전례의 가장 정통한 표현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대중 신심의 실재를 경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회의 예배에 불필요하고 더 나아가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중 신심을 고려하지 않거나 경시하는 것은 흔히 교회의 일부 실재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드러내며, 이러한 태도는 신앙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념적인 편견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게 된다.

- 대중 신심 자체가 성령의 고무와 인도를 받는 교회의 실

42 전례 헌장, 13항 참조.

채임을 부인한다.⁴³⁾

● 대중 신심이 교회 안에서 맺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맺고 있는 은총과 성덕의 열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 흔히 현실성이 없는 ‘순수 전례’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순수성을 정하는 기준의 주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전례는 역사적 실재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열망에 속한다.

● 전례와 대중 신심의 여러 표현에 함법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인간 정신의 승고한 요소인 ‘감정’과 그 변질된 형태인 ‘감상주의’를 혼동한다.

51.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에서, 정반대의 현상과도 마주친다. 대중 신심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실제로 교회의 전례를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나 이튼적인 선택 때문에 사목적으로 빚나가는 일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례는 더 이상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⁴⁴⁾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의 이해나 감수성과 관계 없는 예배 표현이 됨으로써, 무시되고 부차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나 특정 집단에만 속하게 된다.

52. 그리스도교 예배를 현대인들, 특히 교리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가혹한 생각에서 전례 예식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을 이튼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어떤 문화가 전례의 일정한 요소와 구조를 받아들일 때에는 여

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인내와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종종 지극히 간단한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53. 전례 행위보다 대중 신심을 우선시해 온 경우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듣게 된다.

● 대중 신심은 ‘삶’과 그것의 다양한 표현들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찬미하기에 알맞다. 반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전례는 본질적으로 생기가 없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며 자연스러움을 억제한다.

● 전례는 모든 신자 구성원의 육체적 정신적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대중 신심은 인간에게 직접 호소하기 때문에 각 신자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 대중 신심은 참되고 실질적인 기도 생활의 중심이다. 신자들은 신심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는 말로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전례는 신자들의 언어가 아니거나 그들의 문화 수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기도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된다.

● 대중 신심을 표현하는 예식은 신자들의 문화적 기대와 예식 언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례의 고유한 예식은 그 다양한 표현 형태들이 신자들의 그것과 동떨어진 다른 문화적 원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54. 이러한 견해들은 일부 문화권의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차이점을 과장되고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교 전례

43. 요한 바오로 2세, 칠레 라세레나의 말씀 전례 때 한 강론, 2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1(1987), 1078면 참조.

44. 전례 헌장, 10항.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그 본질적인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여,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심사숙고된 엄중한 말을 언제나 상기하여야 한다.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⁴⁵⁾

55. 전례를 무시한 채 대중 신심만을 일방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전례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모순되며,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게 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전례 거행을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찬미와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⁴⁶⁾ 전례 거행은 신앙의 충실성을 요구하며,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근본적인 구원 사건에 참여하게 한다(로마 6,2-6; 1고린 11,23-26 참조).

자신의 신비와 예배 활동과 구원 활동을 이해하는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회생 제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⁴⁷⁾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신심 표현들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56.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례를 경시할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느님의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자비로운 눈길로 굽어보시며 성자의 강생

과 성령의 파견을 통하여 인간을 당신께 이끄신다. 전례에 대한 경시는 또한 구원 역사의 의미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전례를 뒷받침하며 전례가 언제나 의지하는 하느님의 구원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한다. 이러한 자세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중요한 업적에 대한 신자들의 깨달음을 약화시켜, 결국은 교회 감각(sensus Ecclesiae)을 상실하게 한다.

57. 언제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⁴⁸⁾ 대중 신심을 배타적으로 장려할 경우, 결과적으로 신자들을 그리스도교의 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종교심에서 비롯된 요소들을 남용하거나 왜곡되게 사용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교 이전의 신앙에서 가져왔거나 단순히 문화적, 국민적, 민족적, 심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요소들을 그리스도교 예배에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정화되지 않은 신앙 체험을 통하여 초월성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킴으로써,⁴⁹⁾ 인간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부추기고(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위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모든 참된 이해를 방해한다. 실제로 신자들이 마음속으로 유일한 증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성인들, 심지어 자국의 성인들과 같은 이차적인 증개자의 역할을 더 낫게 여길 수도 있다.

58. 전례와 대중 신심은 경계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그

45. 전례 현장, 7항.

46. 같은 곳, 5-7항 참조.

47. 같은 곳, 2항.

48. 본문 9항 참조.

49. 교황청 신앙교리성, 그리스도교 명상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기도 형태」(Orationis Formas), 1989. 10. 15., AAS 82(1990), 362-379면 참조.

리스도교 예배의 합법적인 표현이다.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전례와 대중 신심은 공의회와 ‘전례 현장’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거룩한 전례는 이러한 신심 행위를 훨씬 앞서 가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들은 어느 모로든 전례에서 이끌어 내고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들이어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⁵⁰⁾

그러므로 전례와 대중 신심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예배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도 일차적인 준거는 전례로서, 대중 신심에서 발견되는 “기도와 은사 생활에 대한 열망들을 온전하고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⁵¹⁾ 대중 신심은 나름대로 그 상징성과 풍부한 표현력 덕택에 흔히 토착화를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전례에 제공하며,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창조성을 자극한다.⁵²⁾

교육의 중요성

59. 앞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 교육이야말로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의 불균형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장기간에 걸친 기본적인 전례 교육과 더불어, 대중 신심에 대한 교육을 새롭게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전례 교육을 보완할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⁵³⁾ 특히 대중 신심은 영성 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⁵⁴⁾

50. 전례 현장, 13항.

51. 제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푸에블라 문헌」, 465e.

52. 같은 곳 참조.

53. 「25주년」, 15항 참조.

54.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청 경신성사성 정기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교회 생활에서 전례의 필요불가결한 중심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 신심의 완성은 전례 거행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영성 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에 대한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⁵⁵⁾ 따라서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전례에만 국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흔히 성찬례 참여로 국한된 전례 행위는 그리스도인 백성의 전통적인 신심 표현들이 전달하는 가치나 개인 기도가 결여된 삶을 충만하게 해 줄 수 없다. 다양한 모습을 한 동양의 ‘종교’ 관습들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은 삶과 고통과 나눔의 영성에 대한 추구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공의회 이후의 세대는 — 나라에 따라 — 이전 세대의 신심 행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분명히, 교리교육과 그 밖의 교육 활동에서 영성 생활의 모범을 제시할 때 대중 신심의 세습 자산, 특히 교회의 교도권이 권고하는 신심 행위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 신심이 전례의 요소는 아니지만 이상적으로는 전례 거행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적절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설명되어야 합니다”(5항). *Notitiae* 37(2001), 403면; 교황청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지침」, 195-196항 참조.

55. 전례 현장, 12항.